

1위
ABC 중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2022 태권도영상공모전’ 문의 쇄도…응모 요령 ‘A to Z’ 다양한 동작+독창성+재미 ‘나만의 태권도 영상’이면 OK



나태주 “태권도영상 만들고 상금 타세요” ‘2022 태권도영상공모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나태주가 방송, 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몸값을 높이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발차기’ 시범을 보이는 등 태권도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그는 “태권도가 우리 일상 속에 살아 숨 쉬는 국기인 만큼 편하게 접했으면” 하는 바람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태권도영상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왼쪽은 나태주의 태권도 기본동작. 오른쪽은 나태주가 참여한 ‘2022 태권도영상공모전’ 홍보영상. 김민석 기자 marineboy@donga.com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의 가치와 우수성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지구촌 태권도 마니아들의 축제인 ‘2022 태권도영상공모전’ 홍보대사인 ‘태권 트로트맨’ 나태주가 태권도 홍보에 팔 걷고 나섰다.

태권도와 케이팝 안무를 접목해 공연하는 시범단 ‘케이타이거즈(K-Tigers)’의 멤버이기도 한 나태주는 최근 촬영한 ‘2022 태권도영상공모전’ 홍보영상을 통해 발차기 등 태권도 기본동작을 보여주며 공모전 응모방법과 수상비법 등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소개했다.

2018년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자유 품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나태주는 “태권도는 저에게 뿌리 같은 존재”라며 “태권도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태권도영상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회째를 맞은 ‘태권도영상공모전’

‘케이팝 태권댄스’ 부문 응모 팬 K팝에 맞춰 군무·개인동작 연출
‘다이너믹 태권도’ 부문 자유자재
드라마 패러디·도장자랑 등 다양

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다’라는 주제로 한문화재단과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9월 13일까지 3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9편의 수상작에 총 3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응모 영상은 20초~2분 분량으로 직접 촬영한 독자적인 영상물이면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고 다이너믹한 태권도영상으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크게 ‘케이팝(K-POP) 태권댄스’와 ‘다이너믹 태권도’의 2개 부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케이팝 태권댄스 부문에선 본인이

직접 촬영한 20초~2분 이내 영상
총상금 3000만원…9월13일 마감
사무국 “쇼트영상 응모작품 많아
독창적 아이디어가 큰 심사 기준”

직접 선택한 K-POP 음악에 맞춰 단체 군무, 개인동작 시범 등 다양한 동작으로 ‘아름다운 한류문화’를 표현하면 된다. 모든 동작과 구성, 표현방법 등은 응모자가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고, 드라마틱한 요소를 곁들여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구성해도 무방하다.

다이너믹 태권도 부문은 응모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형식의 구성이 가능하다. 드라마, 영화 등의 패러디, 풍트 및 시트콤과 같은 단편 구성 등 태권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형식을 포함한다. 특히 MZ세대를 겨냥해 멋지게 꾸며진 우리 태권도장 자랑하기, 나만의 고난도 태권도 동작 시범 등은 많은 참가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응모 요소 중 하나다. 태권도의 ‘미’를 뽐낼 수 있는 모든 영상 구성이 다이너믹 태권도 부문에 해당되며, 형식이나 연출에 별다른 제약은 없다.

공모전 사무국은 “요즘 세대에 맞는 독자적인 콘셉트와 재미 요소를 반영한 쇼트영상 응모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무국에서도 감탄할 만한 개성 있는 작품들이 접수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모전의 주제인 대한민국국기, 태권도의 가치를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독창성 있는 작품이 심사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응모자의 자유롭고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곧 심사기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응모기간 : 2022년 6월 7일 ~ 9월 13일
- 응모 분야 및 방법 : 한문화재단 홈페이지(www.k-cf.org)에서 신청서 작성 및 영상 업로드

주최·주관 : KCF Korea Culture Foundation 한문화재단

스포츠동아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WORLD TAEKWONDO

대한태권도협회 KTA

한문화재단 한문화재단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ADF 아시아발전재단

‘국민거포’ 박병호가 말하는 ‘야구 그리고 홈런’

“개인통산 400호 홈런 올해는 힘들지만 꼭!”

350호 고지 등정…목표보다 매 경기 집중
홈런·타점·장타율 선두권…타율도 높일 것



KT 위즈
박병호 (36)
에게 2022시즌은 매우 중

요하다. 견재를 입증해야 하는 시즌이다. 페넌트레이스의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의 결과는 기대이상이다. 28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까지 23홈런을 터뜨리며 명성을 되찾았다. 지난 2년간의 부진이 ‘에이징 커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했다. 개인통산 350호 홈런 고지도 밟으며 KBO리그 통산 홈런랭킹 단독 5위로 올라섰다. 시즌 타율은 0.249로 아쉽지만, 중심타자 답게 59타점을 올리는 등 해 결사 본능은 심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이라고 말한다. 시즌 종료 후 결과로 최종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올 시즌 절반의 레이스를 마친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KT 박병호는 올 시즌 홈런 선두를 질주하며 ‘국민거포’의 명성을 되찾았다. 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당장의 성적보다는 올 시즌 최종 결과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스포츠동아DB

●“거포? 타율도 신경 쓴다”

대형 아치를 끊임없이 그리고 있지만, 그에게도 타율은 아픈 구석이다. 홈런포로 팀에 기여도가 높지만, 타율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2018시즌(타율 0.345) 이후로는 3할을 찍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은 2할2푼대에 머물렀다. 박병호는 “당연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타율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6월초 급격히 부진해 솔직히 마음고생을 좀 했다. 다른 선수들이 잘해준 덕분에 나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다행히 16일 수원 SSG 랜더스전부터 최근 10경기에선 타율 0.308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3안타 경기도 3차례였다.

●“시즌 종료 후 결과만 생각”

올 시즌 목표적인 홈런 1위를 비롯해 타점 2위, 장타율 2위 등 수치상으로 눈부신 결과를 얻고 있지만, 당장의 기록은 머릿속에 남겨두지 않는다. “통산 350호 홈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잊고 있었다”는 그는 “지난 2년간 좋지 않아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KT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야구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홈런 페이스면 ‘40개를 친다’, ‘50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나는 페넌트레이스가 종료된 시점에서의 성적만 생각한다. 경기가 끝나면 다음 경기에 나설 투수를 상대하는 준비만 한다”고 밝혔다.

●“400홈런 해보고 싶긴 하다”

박병호는 수치상의 목표를 잘 언급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그가 주목하는 한 가지가 있다. 개인통산 400홈런이다. 올 시즌 내 달성은 어렵지만, KT와 계약기간인 2024년까지는 가능하다. 물론 그 때까지 기량과 파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400호 홈런 달성에 욕심을 낸다. 박병호는 KBO리그 통산 홈런 1위(467개)인 레전드 이승엽의 부드러운 스윙에 주목한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극 중 하나다. 그는 “대단한 이승엽 선배님과 자주 비교되는데 영광이면서도 죄송했다. 선배님의 부드러운 스윙을 늘 부러워했다. 그 덕분에 나도 발전하지 않았나 싶다. 통산 400홈런은 꼭 해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구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암보험 하나 있는데
보출월도 걱정되고”
보출월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2018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암 치료비는 나오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암 진단 후 실제 또는 휴직 46.8%
2013 국립암센터(국가암예방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사망원인 2위 질병은
대비조차 안 했고”
대한민국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2017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8)

내 보험! 보장빈틈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이 없어서 걱정하고 싶을 때, 이제 걱정 마세요!
금병의 진단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보험 빈틈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가임고객 전용 <AAA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별도 안내장 참고

백세시대
꼭 해나 건강보험
(강신형)

보출월
진단비

금성심근경색
진단비

암생활비
(특약)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 ~ 75세)

자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60-6700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진단금은 최초 1회만) 단, 암 특약은 가입 후 91일부터(소액암은 첫날부터)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 만기 원금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급금을 한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A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즈2in1 와이드그릴 상담원로서, 무료상담!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00 이상 상담 시(개인정보 제외)
- 백송은 상담원료 후 약 6주 소요(인회 환형)
- (당사 사본을 지니 두각 연애) 초과 시 지급 제한
- 본 상품은 소비자 기증 50만원 초과하지 않음
-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될 수 있음